

정보통신의 두가지 핵심과제

MS(마이크로소프트)社가 해킹을 당했다는 뉴스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.

'트로이 목마'라고 불리는 해킹 프로그램은 세상에 나온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. 이미 알려져 있는 이 프로그램에 MS사는 충분히 이중, 삼중의 방어막을 두었을텐데도 맥없이 핵심코드를 노출시켜 버린 것이지요.

아직 그 의도나 주체가 밝혀지지 않았지만, 누군가가 그 '정보'를 가지고 협상을 벌인다면 MS사는 과연 얼마까지 지불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라고 합니다.

KMS(Knowledge Managemenet System), 즉 지식경영시스템은 지식공유라는 측면에서 전세계를 하나로 묶어가고 있고, 그 핵심기반은 인터넷입니다.

'무조건 열심히 하기'보다 '어떻게 열심히 할 것'인가.

그리고 필요정보를 '어떻게 만들 것인가(know-how)'에서 '어디에 있느냐(know-where)'는 시각이 더 중요해진 것은 이미 오래입니다.

정보통신 기술개발은 두가지 바퀴로 굴러가야 합니다.

산지 곳곳에서 버려지는 정보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새로운 지식까지 생성할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 구축과 이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철저한 방호막입니다.

이미 총성없는 전쟁(사이버전쟁)은 진행중입니다.

뉴스에서 보도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사상자, 부상자 숫자는 아주 작은 외피에 불과합니다.

상대국의 정보망 파괴와 정보유출은 단지 몇 명의 부상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.

산(기업)·학(학계)·연(연구소)의 적극적인 상호 교류와 이에 대한 정책생산에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.

그리고... 물론...

개개인마다 V3 최신버전으로 바이러스 검사도 중요하고요.